

# 만사대평

2018년  
2월호

## 2018 만사대평에 바란다

새해를 맞아 더 나은 깡깡이마을 신문 「만사대평」을 만들기 위해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1월 19일까지 약 2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만사대평」팀은 주민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2018년에는 주민을 위한 신문, 내실 있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설문 응답자: 총 53명 나이 | 50대 • 60대 • 70대 • 80대 순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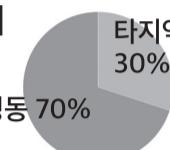


남자  
36%



여자  
64%

·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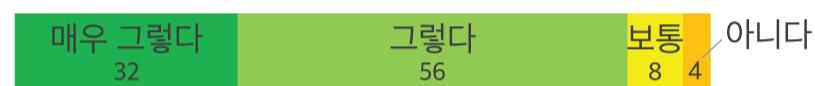


### 마을신문 「만사대평」의 좋은 점 (단위: %)

#### 나도 대평동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 마을 소식을 잘 알 수 있다



#### 잘 몰랐던 마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타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해 자부심이 생긴다



####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신문에 있어 타인에게 마을을 소개하기 좋다



#### 주민 간에 이야기 할 거리가 생겼다



만사대평이 마을신문으로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었는데요. 대체로 모든 문항에 7~80%이상의 분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만사대평이 마을 공동체를 살리고 자부심을 높여나가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마을신문 「만사대평」의 문제점 (단위: %)

#### 신문 사이즈가 크다



#### 글자 크기가 작아 읽기 불편하다



#### 색이 많고 디자인이 현란하다



#### 볼거리 또는 재미가 없다



#### 내용(글)이 너무 많다



만사대평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해보는 문항이었는데요. 신문 사이즈나 디자인, 볼거리,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통이다'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다만 글자 크기가 작다는 문제점이 다소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구독자 대다수가 50세 이상이신 점을 감안해 좀 더 가독성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 02

마을신문에서 한번 이상 본적이 있는 내용은?  
(중복답변 허용)



그중 가장 재밌게 본 내용은?  
(2개 답변 허용)



마을신문 기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중복답변 허용)



앞으로 마을신문에서 더 보고 싶은 내용?



신문 기사 중에서는 마을의 역사나 마을회의 활동 등 주민 분들에게 가장 가깝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기억하고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마을신문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신문 소재로 더 많이 다뤄져 마을이 좀 더 쾌적하고 건강하게 발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마을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데 이런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를 실어달라는 의견, 대평동의 주차난의 원인과 해결점을 제시해달라는 의견, 마을 도선의 재 운행을 촉구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양다방을 찾는 단골 손님들 이야기, 도선이 중단된 이유, 방문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대평동의 볼거리, 마을 도로의 변화 과정, 깡깡이 아지매의 옛 기억 등을 신문 소재로 다뤄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마을신문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발행했으면 좋겠다” “초심을 잊지 마라” “가식 없는 솔직한 이야기를 가지고 공감 있는 주제를 다뤘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을신문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영도 구민이 다 알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담아 2018년에도 더 재밌고,  
더 자랑스러운 만사대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Привет, Россия!

## Встреча с культурой России в Тэпхёндоне

안녕 러시아! 대평동 속 러시아 문화를 만난다

Основываясь на разли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по истори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живой культуре селения Кканкканъи, проектная группа по созданию культурного селения Кканкканъи в Тэпхёндоне района Йондо публикует серию книг под названием «100 лет истории селения Кканкканъ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убликовались серии об истории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 концу марта этого года готовится к изданию серия о жизни в селении. В книг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живая культура в Тэпхёндоне, старинное общество жителей селения, имидж Тэпхёндона, выраженный в фильмах, книгах и фотографиях, иностранная культура в селении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Особенное внимание в разделе об иностранной культуре удалено «культуре России», потому что между Тэпхёндоно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 Россией давно поддерживаются близкие отношения. Многие российские суда приходят в Тэпхёндон в целях ремонта с советского времени и до наших дней. Поэтому в Тэпхёндоне легко найти таблички, написанны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Как говорят, «если российские суда не придут, будет трудно существовать ремонтным верфям в Тэпхёндоне»: в Тэпхёндоне налажены отношения с российскими судами, а также частыми посещениями россиян. Не смотря на частые посещения россиян, культура России является непривычной для жителей селения Кканкканъи и горожан Пусана. Поэтому группа проекта по созданию культурного селения Кканкканъи планирует представить в книге культуру России в Тэпхёндоне, чтобы много людей могли бы бли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ультурой России.

Чтобы узнать о другой стране, важн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говорить с людьми из неё.

Встречаясь с россиянами, работающими в Тэпхёндоне, мы проводили короткий опрос и беседу. Встречайте рассказы людей, сердечно отвечавших!

영도 대평동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에서는 깡깡이마을의 역사, 산업, 생활문화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바탕으로 책 <깡깡이마을 100년의 울림>을 시리즈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간한 역사 편과 산업 편에 이어 올해 3월 말 경에는 마지막 시리즈인 생활 편을 발간할 예정인데요. 생활 편에는 대평동의 생활문화와 오래된 마을 조직 이야기, 영화와 책, 사진 등에 등장하는 장소로서 대평동의 매력과 마을 속 외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 등이 실릴 예정입니다.

마을 속 외국 문화 부분에서는 특히 ‘러시아’ 문화에 주목했는데요. 한국 대평동과 러시아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깊이 있게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러시아 배들이 수리를 하기 위해 과거 소련 때부터 지금까지 대평동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평동에서는 러시아어로 된 간판이나 글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선박이 오지 않으면 대평동 수리조선소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재 대평동은 러시아 선박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러시아 분들의 왕래도 빈번합니다. 잦은 왕래에도 불구하고 깡깡이마을 사람들에게나 부산 사람들에게 러시아 문화는 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낯설기만 합니다.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에서는 많은 분들이 러시아 문화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대평동 속 러시아 문화를 책에 실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나라 문화를 알려면 먼저 그 나라 사람을 만나봐야겠죠?

대평동에서 근무하고 계신 러시아 분을 직접 만나 간단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정성스럽게 적어주신 그 분들의 이야기를 미리 한 번 만나보시죠.

글 · 하은지 편집위원



카피탄 카잔체프(Капитан Казанцев)

\*인터뷰 및 번역 · 오동건 **Интервьюер и переводчик·О Донгон** : 한러 수교가 이루어진 1990년에 태어남. 대평동에서 3살까지 살았고 2001년까지 친가가 있었음. 2016년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졸업. 국립 모스크바외국어대학교(2013~14)와 국립 노보시비르스크대학교(2014~15) 교환 학생으로 러시아 한국학자들과도 교류. 2014년 국제학술대회인 제3차 ‘한국학의 젊은 세대’, 2015년에는 제53차 ‘국제대학생학술대회’ 참가. 한러수교 25주년 기념 러시아어 작문 대회 2등상 수상. 러시아 한국학자 레프 콘체비치와 편저『대한민국 지명 사전』 일부 공동 집필 및 편집. 현재 러시아학, 언어학, 역사 및 지역학(특히 부산)에 관심이 있다.

\*도움·마스텍중공업(주) 박영 이사님

# 04 특집 인물포커스

## ВОПРОСЫ : 질문

- 1) Как Вас зовут? Сколько Вам лет?  
이름이 무엇입니까? 몇 세입니까?
- 2) Из какого города Вы приехали?  
Расскажите немного о Вашем родном городе.  
어느 도시에서 오셨습니까? 고향에 대하여 조금 말씀해 주세요.
- 3) Расскажите о Вашей семье, пожалуйста.  
가족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 4) Чем Вы занимаетесь? Какая у Вас профессия?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직업은 무엇입니까?
- 5) Какое у Вас впечатление о Тэпхёндоне?  
대평동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 6) Есть ли у вас какие-либо воспоминания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대한민국에서 어떤 추억이 있습니다?
- 7) Есть ли у вас какие-либо слова,  
чтобы сказать корейцам или жителям Тэпхёндона?  
한국인들과 대평동 주민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고보스토크 5(Юго-Восток-5)호

## 데니스 자도로즈니

- Denis Чонг 1. 데니스(\*이름만 적음), 40세  
Владивосток. 2. 블라디보스토크  
Жена; супруга 3. 부인과 아들  
Судоремонт. 4. 선박 수리  
Только положительные впечатления.  
5. 오직 긍정적인 인상만 있습니다.  
Замечательная страна. 6. 멋있는 나라입니다.  
Замечательная страна,  
желает ее видеть люди. 7. 멋진 나라와 멋진 분들  
(이라는 말을 전합니다).

## 유리 드미트리예프

- Юрий 54 года 1. 유리(\*이름만 적음), 54세  
гражданка Камы 2. 볼쇼이 카멘 시  
Мои сам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о Человеке  
3. 제 가족은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Электрик 4. 전기사  
Это моя работа, где я работаю  
10 лет 5. 여기는 제가 10년 동안 일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Мне нравится Корея 6. 한국이 제 마음에 듭니다.  
У меня самые добрые поглядывания  
всем корейским гражданам.  
7. 모든 한국 국민 여러분께 가장 좋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 블라디미르 오노프리옌코

- Vladimir 53 1. 블라디미르(\*이름만 적음), 53세  
Надежда 2. 나홋카  
Ч 3. 4명  
El. инженер 4. 전기사  
Свеча 5. 염지 척  
Свеча 6. 염지 척  
Камсамида 7. 감사미다.  
(\*‘감사합니다’를 발음 나는 대로  
러시아 문자로 적었지만 잘못 적음)

## 비탈리 아팔리코프

- Анатолий Виталий 51 год.  
1. 아팔리코프 비탈리(\*성, 이름 순서로 적음), 51세  
Владивосток 2. 블라디보스토크  
Женат, взрослые дети, есть внучка.  
3. 기혼이며 성인이 된 딸과, 손녀가 있습니다.  
Электромеханик 4. 전기사  
Хорошее. 5. 좋습니다.  
Сильно изменился за 15 лет.  
6. 15년 동안 (\*한국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Так держать, здоровье, производство  
7. 항상 굳세고 건강하시며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유리  
드미트리예프데니스  
자도로즈니블라디미르  
오노프리옌코

## 알렉세이 나자르체프

*Nazarov Alexey 42.*

1. 나자르체프 알렉세이(\*성, 이름 순서로 적음), 42세

*Khabarovsk 2. 블라디보스토크*

*Ненот, СОН, 9046 3. 기혼이며 아들과 딸*

*инженер 4. 엔지니어링*

*Всё только самое хорошее  
yes 5. 모두 다 좋은 인상뿐입니다.*

*Надеюсь всему хорошего ! 6. 예.*

7.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 알렉산드르

*Александр, 45 лет 1. 알렉산드르(\*이름만 적음), 45세*

*Владивосток, очень красивый город*

2. 블라디보스토크.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Холмск, живу один. 3. 미혼자. 혼자 살고 있습니다.*

*Инженер 4. 엔지니어*

*Мужчина преодолевает трудности. 5. 재개조가 필요합니다.*

*Хорошее, прекрасное, 6. 좋고 매우 아름다우며 다정합니다.*

*живите в мире и дружбе, любви*

7. 평화, 우정과 사랑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 새해 첫 깡깡이마을 정기투어

새해 첫 깡깡이마을 정기 투어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청자가 많았던 이번 투어에는 총 19명의 투어객이 참여해주셨으며, 박분란 주해설사님과 이영옥, 강장수 보조해설사님의 진행으로 즐겁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실시한 작은 경품 이벤트도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동절기인 2월까지는 매월 한 번, 3월부터는 매월 2회(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투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많은 신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관 앞둔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쾌적한 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구 대평동 마을회관(대평유치원 포함)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깡깡이 생활문화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층에는 대평마을다방과 공동체 부엌, 2층에는 마을박물관과 대평동 마을회관, 체력단련 공간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멋진 모습으로 단장한 대평마을다방에서 따뜻한 커피 한잔하며 잠깐의 여유를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오픈식은 3월 23일(금), 24일(토) 예정

# 초량 이바구캠프에 가다



경사길 지나 계단을 오르니 옛 시절 추억의 벽화가 보이고 그 위로 예쁜 색의 건물들이 층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맨 위쪽은 게스트 하우스로 3층 구조이다. 전망이 좋은 옥상에는 인디언텐트 및 캠핑시절 준비되어 있는데 이용객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가끔 있어 사용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는 수칙도 있습니다. 게스트 하우스를 둘러보고 내려오니 이바구캠프의 박정일 본부장님(공유를 위한 창조)과 박은진 대표(공유를 위한 창조, 다온산 마을기업 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바구캠프의 사무실은 다양한 캠핑용품으로 꾸며져 있어 이색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게스트 하우스를 이용하는 방문객은 물론 주민 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공유를 위한 창조’에서는 2015년 이전부터 주민과 많은 시간 소통하고 25억 원 도시재생사업 정부지원금으로 주변환경개선 및 건물 조성 등을 해왔다고 합니다. 2015년 8월, 주민 참여 30%의 (주)다온산 마을기업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이후 운영해오며 여러 가지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 회계 자료 및 수익금 등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였고, 수익금을 인건비나 마을행사 및 축제, 단체 관광, 여행 등 주민 화합에 역점을 두고 사용하며 마을 주민과의 신뢰가 두터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평동에서도 마을카페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박정일 본부장은 “카페 운영에 참여 주민 분들은 마을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수익금을 꾸준히 적립해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출발부터 참여주민들이 이익금을 챙기면 짧은 기간 내에 운영이 악화되는 사례가 많으니 신중하게 운영하라는 말씀도 덧붙여주셨습니다.

글 · 이춘옥 주민기자



## 주민기자 단상

박정일 본부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설명을 해주셨다. 그중에 참 좋았던 점은 주민협의체와 사업단이 주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어르신과 젊은 청년들이 일심단결하여 사업이 진행한다는 점이다. 게스트 하우스는 비용은 2만원에서 20만원 선까지, 저렴한 방도 있고 제법 비싼 방도 있었다. 태양열로 에너지를 사용하다보니 비용이 절감되는 것 같다. 우리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옥상에도 태양열을 설치하여 그린에너지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 김동진 편집위원

이바구캠프는 정말 공간 활용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민부전망대에 서니 북항과 영도구, 부산항대교가 훤히 보였는데 이곳에서 보니 영도가 새롭게 보였다. 마을에서 벌어지는 축제나 행사들이 대부분 마을 주민의 봉사로 이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을도 그런 움직임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무엇보다 168 도시락국의 시락국밥은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다.

- 이종렬 주민기자

이바구길을 다 둘러보고 들른 168 도시락국. 예전에 할머니가 아궁이에 끓여주시던 시래기국이 생각나는 맛이었습니다. 새로운 맛에 길들여진 요즘, 구수한 시래기국에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며 좋은 추억 하나를 남겼습니다.

168계단과 옆 모노레일이 있어 무척 편리했다. 무엇보다 168계단의 모습과 주변 풍경을 대부분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적인 모노레일이 다니는 모습이 무척이나 조화로웠다.

- 이은미 주민기자

**대평동  
용어 사전  
[로구로]**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품은 ‘로구로’입니다. 로구로는 일본어 ‘ろくろ’(로구로 : 녹로 轆轤)가 어원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로구로란 나무 등의 재료를 깎아서 만드는 공예 혹은 공예품을 일컫는 말로, 대체로 토기용 · 목공용 · 금속세공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평동에서 오랜 기간 기관부품을 제작해 오신 ‘현대공업사’ 김정현 과장님께선 “수리 부품을 만드는 로구로 공작 기계는 우측에 재료를 고정하는 척이 있고, 반대편엔 구멍을 뚫어주는 드릴이 있습니다. 부품 크기가 보통 10mm 정도의 작은 부속들을 가공하는데 사람이 직접 구멍을 뚫고 절단까지 한다면 너무 어렵죠. 기계 크기는 1500mm 정도로 그다지 크지 않지만, 공정 수가 얼마 안 되는 작은 부속들을 작업할 때 몇 백 개에서 최대 천 개까지 대량생산이 가능합니다”라고 로구로 기계의 작동원리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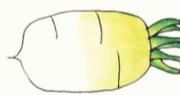
과거 범용선반과 함께 대평동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로구로 기계는 지금은 CNC선반, 즉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자동으로 공정이 진행되고, 정밀도가 훨씬 더 높아진 전자식 기계로 많이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대평동에서 주로 일컫는 ‘로구로’는 금속세공 기계만이 아니라 신주로 만들어진 금속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성분 속의 황·인의 양을 일부러 늘려 견고함이나 형태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얇아 특수한 모양 제작 때 주로 사용되는 금속인 ‘로구로’는 흔히 기부속, 너트, 볼트와 같이 일정한 두께의 외부모양을 남기고 안쪽을 파 들어가서 모양을 낸 부품으로 통칭되기도 합니다.

글·우동준 객원기자

100세까지 깡깡하게 살기 위해

## 꼭! 알아두어야 할 건강상식 체했을 때

### 1. 생무 섭취



무에는 소화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서 제대로 된 소화제가 없던 시절에는 체했을 때 민간요법으로 생무를 먹었다고 합니다.

### 2. 협곡혈 지압



가볍게 체했을 때는 협곡혈을 눌러주면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 3. 곡지혈 지압



팔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곳을 곡지혈 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강하게 자극해주면 소화가 촉진되어 체증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글 및 그림 · 이은미 주민기자

## 시가 있는 깡깡이마을

\* 이 시화는 깡깡이예술마을 시화동아리 회원이신 서만선 어머니의 작품입니다.

고향을 바라본 눈

서만선

남향 방파제 우뚝 서있는  
등대 밑 바로 내가 서인네  
꺼나면 고향산 바라보는  
내 눈 눈물 고이고  
좌측 바다 쳐다보니 육지로 변했네  
지혜로운 사람에 손 누가 멈추게 할까  
그 누구도 없겠지  
아 고향 뜨나 온지 벌써 삼십구년  
산천 초목은 번화지 양아도  
내 몸은 몰라보개 변했구나  
마지막 가는 내집은  
여디 일까 지금 알수 있을까



## 칭찬합니다

다섯 번째  
칭찬릴레이 주인공  
김영곤 님

김영곤 님께서는 BBS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정영수 님을 칭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큰 키에 수준급 외모를 가지셨고 흔히 말하는 중년계의 훈남이시라고 합니다. 키가 크면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지만 같이 있으면 끊임 없이 웃음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웃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요. 같이 있는 동안에는 실컷 웃다가 온다고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정영수 님을 칭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취재 · 이종렬 주민기자

#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소식

깡깡이  
예술마을  
사업이란?

깡깡이예술마을 사업은 2015년 부산시 예술상상마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영도 대평동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 깡깡이마을 스토리지도

2017년 작품 및 공간까지 업데이트 된 깡깡이마을 지도의 최종 버전이 나왔습니다. 거리 구석구석 역사적 공간과 재밌는 예술작품들이 있는 깡깡이마을에서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 줄 깡깡이마을 스토리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 ● 「만사대평」에서는 지면광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광고료는 5x7cm(명함사이즈) 1만원, 11x8cm 2만원입니다. 광고료는 향후 마을신문 발행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 「만사대평」은 부산시내 주요 관공서, 공공도서관, 영도구내 주요 관공서와 관광안내센터 등에 배포됩니다.
- \* 광고를 신기 원하는 분은 깡깡이예술마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 깡깡이마을박물관 기증품 모집

